
주요국 예산안 - 미국

2018. 3. 26.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3
2. 예산기조	6
3. 예산안 내용	7
가. 세입	7
나. 세출	8
4. 주요 재정정책	15
가. 인프라 투자	15
나. 이민관련 제도 (국경장벽 건설 등)	16
다. 의료 정책	18
라. 주요 재정사업 절감 및 개혁	19

미국 개황

□ FY2019 : 2018년 10월 ~ 2019년 9월

□ 출처 :

○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

○ Analytical Perspectives: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

□ 환율 : 1USD = 약 1,130.84원 (2017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16년 경상GDP 18조 6,245억 달러 (우리나라의 약 13.2배 수준)

□ GDP대비 수출입 비율(명목) : 2016년 기준 26.6% (우리나라는 77.7%)

□ 인구 : 3억 2,339만명 (2016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18년 실질성장률은 3.0%, 내년('19년)에 3.2%로 소폭 상승한 후, 향후 5년간 3.0~3.1%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 (재정전망) FY2019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8,330억달러) 추정치 대비 18.1% 증가한 9,840억달러(GDP대비 4.7%) 전망
- (국가채무) 정부내부거래를 제외한 FY2019 연방채무(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15조 7,900억달러, GDP대비 78.8%) 추정치 대비 6.9% 증가한 16조 8,720억달러(GDP대비 80.3%) 전망

□ 예산기조

- ① 美 국민의 안전과 보안 ② 더욱 튼튼하고 견실한 미국 경제, ③ 근면 성실한 美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④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9 세입은 전년 (추정치)대비 2.5%(820억달러) 증가한 3조 4,220억 달러 (GDP 대비 16.3%) 전망
- (지출) FY2019 총 재정지출은 전년 (추정치)대비 약 4.6%(1,930억달러) 증가한 4조 4,070억달러(GDP 대비 21%) 편성

□ 주요 재정정책

- 인프라 투자
- 국경안보(border security) 강화
- 약물 남용(drug abuse) 및 마약 과다 복용 확산(opioid overdose epidemic) 대응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¹⁾

□ (경제성장률) '18년 실질성장률은 3.0%, 내년('19년)에 3.2%로 소폭 상승한 후 향후 5년간 3.0~3.1%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중/장기 경제는 약 3%대로 전망)

* CBO가 전년도 중순(2017.6.29.)에 발표한 「'17~'27년 예산·경제 수정 전망²⁾」 보고서는 '18년 경제성장률 2.2%, '19~'20년(평균)은 1.6%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이후 '21~'27년(평균)에 1.9% 유지

- 정부의 2018년 경제전망은 CBO와 Blue Chip Survey³⁾ 등 다른 주요 전망에 비해 0.6~0.8%p 정도 낙관적으로 성장률을 전망
- 명목경제규모(nominal GDP level)는 2018년에 20조달러대에 진입하고, 2026년에 30조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표 1> 미국 경제성장률 기관별 비교

(단위: %)

경제 전망	실적				구분	전망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8
실질 GDP ¹⁾	2.2	2.4	2.6	1.5	정부	2.2	3.0	3.2	3.1	3.0	2.8
					CBO	2.1	2.2	1.7	1.4	1.7	N/A
					Blue Chip	2.2	2.4	2.1	2.1	2.0	2.1

주: 1) 전년대비 변화율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8.2.12.

□ (노동시장) 2019년 실업률은 약 3.7%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4.8%로 전망

- 2015년에 5.0%였던 실업률은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6년에 4.7%, 2017년에 4.4%, 2018년 1월에 4.1%를 기록하였으나, 2020년부터 다시 증가하여 2028년에

1) 경제전망에서의 연도는 다른 언급이 없는 한 회계연도가 아닌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를 의미
 2) CBO, An Update to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17 to 2027, CBO, 2017.1 (2017.6.29.)
<https://www.cbo.gov/system/files/115th-congress-2017-2018/reports/52801-june2017outlook.pdf>
 3) 미국 주요 경제기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평균화 한 수치

4.8% 전망

- 2017년 경제활동참가율의 경우 2016년 62.8% 수준에서 안정(stabilized)하였으나,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맞물려 하락할 것으로 보임

* 경제활동참가율: (2015년) 62.7% → (2016년) 62.8%

□ (물가) 2018년 물가⁴⁾는 1.9%, 2019년에는 2.0%로 전망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2.3% 수준으로 전망

- (소비) 소비는 2017년 4분기에 2.8% 증가하였고, 경제성장(overall growth)의 약 70%를 차지하면서 성장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 (소비는 다양한 범주에서 증가)

* 소비증가율: (자동차 및 부품, motor vehicles and parts) 4.5% / (가구 및 가사용품, furnishings and household equipment) 9.5% / (오락용품 등, recreational goods and vehicles) 9.3%, (식·음료, food and beverages) 3.0%

<표 2> 미국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십억달러, %)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	2028
명목 규모 (\$)	18,037	18,624	19,372	20,262	21,263	22,345	23,482	...	32,991
실질 GDP (2019 예산안 전망치)	2.6	1.6	2.2	3.0	3.2	3.1	3.0	...	2.8
실질 GDP (2018 예산안 전망치)			2.3	2.4	2.7	2.9	3.0	...	3.0
실업률 ¹⁾	5.3	4.9	4.4	3.9	3.7	3.8	3.9	...	4.8
CPI-U ²⁾	0.1	1.3	2.1	2.1	2.0	2.2	2.3	...	2.3
국채 91일물 ¹⁾³⁾	*	0.3	0.9	1.5	2.3	2.9	3.0	...	2.9
국채 10년물 ¹⁾	2.1	1.8	2.3	2.6	3.1	3.4	3.6	...	3.6

* 0.05 percent or less

주: 1) 연평균

2) 계절 조정(도시 소비자 대상)

3) 평균 수익률, 유통시장(은행 할인 기준)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alytical Perspectives」 Table 2-3,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8.2.12.

4) 미국 회계연도 기준: fourth quarter-over-fourth quarter basis

나. 재정전망⁵⁾

- (재정수입) FY2019 세입은 전년대비 2.5%(820억달러) 증가한 3조 4,220억달러 (GDP 대비 16.3%) 전망
- (재정지출) FY2019 총 재정지출은 전년대비 약 4.6%(1,930억달러) 증가한 4조 4,070억 달러(GDP 대비 21%) 편성 (순이자지출은 전년대비 17.1% 증가한 3,630억달러)
 - (재량지출) FY2019 재량지출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1조 3,040억달러 계획
 - 국방분야는 전년대비 6.9% 증가한 6,780억달러, 비국방분야는 전년대비 1.6% 감소한 6,260억달러 계획
 - (의무지출) FY2019 의무지출(순이자지출 제외)은 전년대비 5.6% 증가한 2조 7,390억달러 전망 (순이자지출은 3,630억달러 전망)
 - (기타 의무지출) 인프라 투자 이니셔티브를 위한 준비금(allowance)에 450억달러 배정
- (재정수지) FY2019 재정적자 규모는 전년(8,330억달러)대비 18.1% 증가한 9,840억 달러(GDP대비 4.7%) 전망
 - 향후 10년간 연방정부 총 누적 재정적자는 7조달러를 상회할 전망
 - FY2019에 트럼프 집권 후 가장 높은 재정적자(GDP대비 4.7%)를 기록 한 후, FY2020부터 점차 감소하여 향후 10년(~FY2028)안에 1.4%로 하락할 전망
- (국가채무) FY2019 연방 채무⁶⁾(debt held by the public)는 전년(15조 7,900억달러, GDP대비 78.8%)대비 6.9% 증가한 16조 8,720억달러(GDP대비 80.3%) 전망

* FY2019 연방총채무⁷⁾(22조 7,030억달러)중 정부 내부거래를 의미하는 정부부문소유 채무는 5조 8,310억달러

5) 2018회계연도 기간은 2017.10~2018.9이며, FY2019 전망 시 비교하는 전년의 규모는 추정치이며, 예산 기본문서의 <Table S-4 -. Proposed Budget by Category>를 기준으로 작성

6) 정부 내부 거래(debt held by Government accounts)를 제외한 연방정부 채무는 미국 채무의 주요지표로 쓰임

7) 연방총채무(Gross Federal Debt) = 비정부부문소유채무(Debt held by the public, 정부내부거래를 제외한 채무) + 정부부문소유채무(Debt held by the Government accounts, 정부내부거래만 포함한 채무)

○ FY2018 GDP 대비 연방 채무⁸⁾는 전년(76.5%)대비 2.3%p 증가한 78.8%를 기록한 후, 점차 증가하다가 FY2023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일 전망

- 향후 10년(~FY2028)안에 GDP 대비 72.6%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표 3> 미국 재정전망

재정 전망	실적			전 망								
	2008 ¹⁾	2009 ²⁾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2027	2028	2019~2028
예산총량 (십억 달러)												
수입	2,524	2,105	3,316	3,340	3,422	3,609	3,838	4,089	...	5,506	5,818	45,520
지출	2,983	3,518	3,982	4,173	4,407	4,596	4,754	4,941	...	5,955	6,181	52,615
재정적자	459	1,414	665	833	984	987	916	852	...	450	363	7,095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5,803	7,544	14,665	15,790	16,872	17,947	18,950	19,946	...	23,194	23,684	-
예산총량 (GDP대비 %)												
수입	17.7	14.8	17.3	16.7	16.3	16.4	16.5	16.8	...	17.7	17.8	17.1
지출	21.0	24.7	20.8	21.0	21.0	20.8	20.5	20.3	...	19.2	19.0	20.0
재정적자	3.2	9.9	3.5	4.4	4.7	4.5	3.9	3.5	...	1.4	1.1	2.8
비정부부문 소유채무	40.8	53.0	76.5	78.8	80.3	81.3	81.7	81.9	...	74.6	72.6	-

주: 1) 금융위기 발생 당해 연도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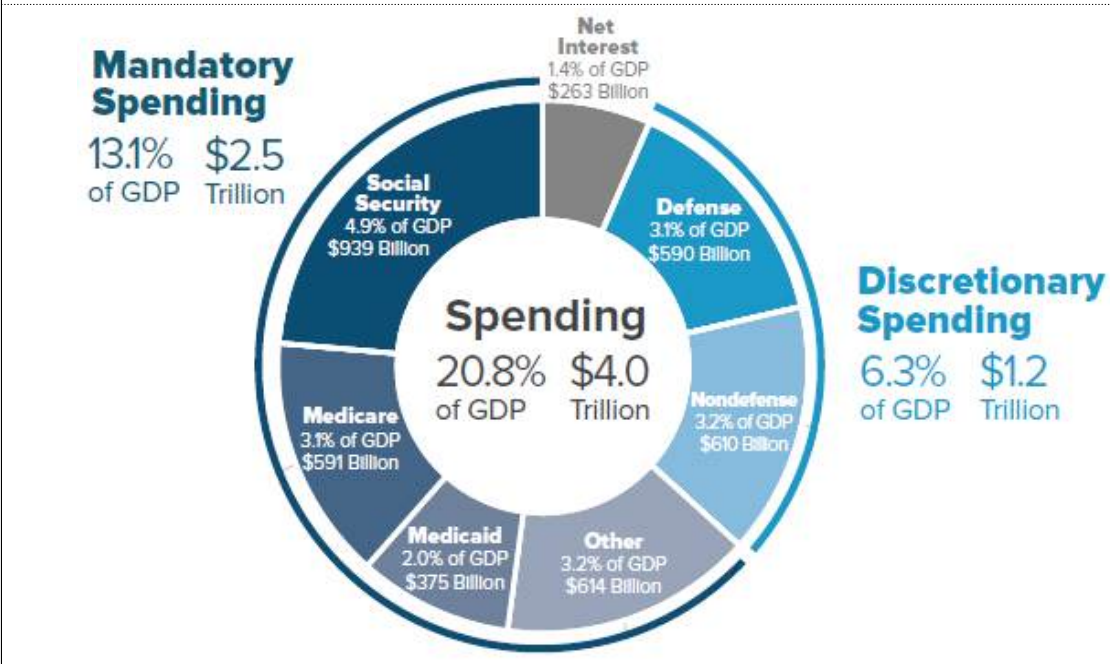
2) 금융위기 발생 직후 연도 수치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1), 2018.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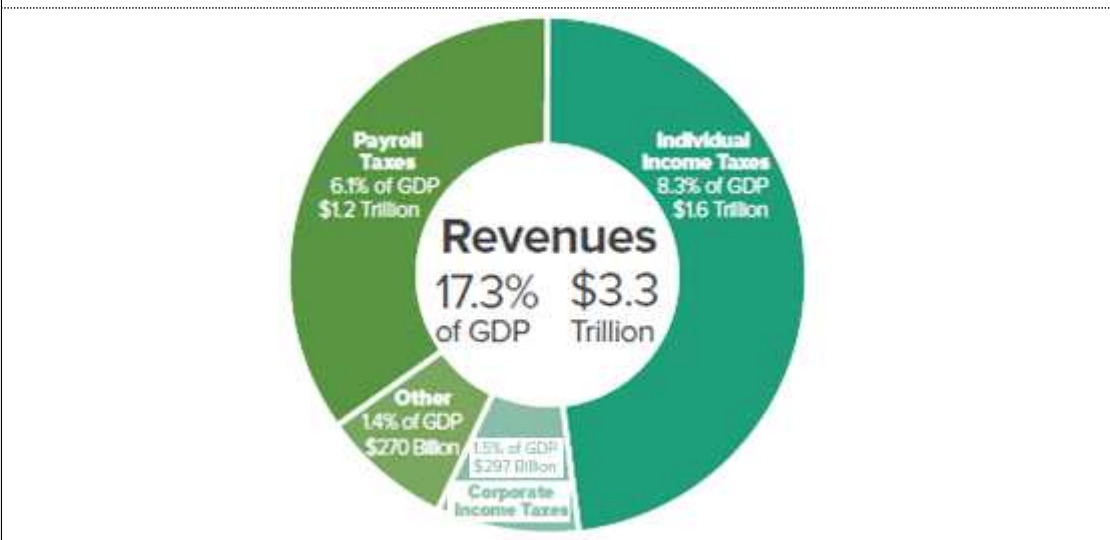
8) 정부 내부 거래 제외

<참고> 2017년 연방재정 CBO 인포그래픽 자료

- ◇ CBO가 발표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출부분을 보면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GDP 대비 규모는 각각 13.1%(2.5조 달러), 6.3%(1.2조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 (의무지출) 사회보장 지출이 GDP 대비 4.9%로 전체 의무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메디케어 지출(GDP대비 3.1%)이 차지하고 있음
 - (재량지출) GDP 대비 국방분야와 비국방분야는 각각 3.1%, 3.2%를 차지하고 있음



- ◇ 2017년 세입부문은, 개인소득세가 GDP 대비 8.3%로 전체세입 부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급여세¹⁾(Payroll taxes)가 GDP 대비 6.1%를 차지하고 있음 (법인세는 GDP 대비 1.5% 수준)



주: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및 메디케어 병원 보험(Medicare's Hospital Insurance) 등 사회보험 프로그램에 대한 세입

자료: CBO, <https://www.cbo.gov/publication/53624>, 2018.3

2. 예산기조

□ 2018년 2월 12일에 발표된 2019 회계연도 예산안은 크게 4개의 화두 제시

- ① 美 국민의 안전과 보안
- ② 더욱 튼튼하고 건실한 미국 경제
- ③ 근면 성실한 美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 ④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 4개의 화두를 바탕으로 국경(특히 남서지역 국경) 안보 강화 및 국가안보 증대, 국방재건, 낭비지출 종식, 경제성장 및 기회 확대, 인프라 재건 등에 대한 투자를 언급

– 2019 예산안 서문 (원문) –

<An American Budget – President’ s Budget FY2019>

“The Budget creates a steady vision inspired by the hardworking spirit of the Nation that will lead us toward prudent spending choices that will promote a *safer, more prosperous, and secure America.*”

“Economic growth coupled with fiscal restraint is not just the end goal, it is the means by which a vision for a New America can be realized. The pillars of this vision, and thus the Budget, are:

- ① the safety and security of the American people;
- ② a stronger, healthier American economy;
- ③ an enhanced quality of life for hardworking Americans; and
- ④ a commitment to a better future.”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FY2019 재정수입은 전년대비 2.5%(820억달러) 증가한 3조 4,220억달러(GDP대비 16.3%) 전망

○ 올해(FY2018) 재정수입은 FY2017대비 약 0.7%(240억달러) 증가한 3조 3,400억달러 (GDP대비 16.7%) 추정

○ GDP 대비 재정수입은 2023년에 17%대로 진입 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FY2019~28 기간 동안 GDP대비 평균 수입비율은 17.1%로 전망

- 개인소득세와 법인세를 제외한 기타 주요 세입의 GDP 대비 비중은 향후 10년간 현재(FY2018)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

* GDP대비 개인소득세: ('18) 8.3% → ('19) 8.0% → ('20) 8.1% → ('21) 8.3%

<표 4> 분야별 주요 세입전망

(단위: 십억달러)

	실적	전망										GDP 대비 평균 비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2027	2028	2019~ 2028
개인소득세	1,587	1,660	1,688	1,791	1,919	2,053	2,202	2,353	...	2,890	3,070	8.7
법인세	297	218	225	265	273	314	374	417	...	406	413	1.3
사회보험 및 퇴직연금 수입 ¹⁾	1,163	1,169	1,238	1,288	1,362	1,439	1,514	1,596	...	1,864	1,975	-
소비세	84	108	108	112	119	106	109	111	...	121	125	0.4
유산세, 증여세	23	25	17	18	19	21	23	24	...	29	31	0.1
관세	35	40	44	47	48	50	51	52	...	56	58	0.2
연방 준비제도 예치 이익금 ²⁾	81	72	55	49	53	60	68	73	...	87	92	0.3
기타 수입	48	48	51	47	47	49	50	52	...	56	58	0.2
총 재정수입	3,316	3,340	3,422	3,609	3,838	4,089	4,386	4,675	...	5,506	5,818	-
GDP대비 %	17.3	16.7	16.3	16.4	16.5	16.8	17.1	17.4	...	17.7	17.8	17.1

주: 1) Social security payroll taxes, Medicare payroll taxes, Unemployment insurance, Others

2) Deposits of earnings, Federal Reserve System

출처: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4),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

나. 세출⁹⁾

- FY2019 재정지출은 전년(4조 2,140억달러)대비 약 4.6% 증가한 4조 4,070억달러(GDP 대비 21%) 계획
 - FY2017 재정지출 실적은 3조 9,815억달러로 GDP 대비 20.8%를 기록
 - 주요 부처 중 가장 많은 지출 규모를 보이는 기관은 국방부, 보훈부¹⁰⁾, 보건·복지부¹¹⁾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을 모두 포함한 주요 기능별 지출(outlays by function)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¹²⁾
 - (국방) 전년대비 7.1% 증가한 6,886억달러로 총 지출대비 15.6% 전망
 - * 기능별 분류에 따른 국방지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16%)의 총지출대비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2020회계연도에는 7천억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 FY2019 재원배분에서 사회보장 지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지출비중을 보이고 있음
 - (소득보장 지원, Income Security) 전년대비 0.2% 소폭 증가한 약 5,000억달러로 총 지출대비 11.3% 전망
 - 소득보장 관련 총 지출은 증가하였으나 General retirement and disability insurance (사회보장분야지출 제외), Housing Assistance(주거지원) 및 Food and nutrition assistance(식품·영양지원) 등의 사업지출은 감소
 - (보건, Health) 전년대비 0.4% 소폭 증가한 5,942억달러로 총 지출대비 13.5% 전망
 - 보건관련 연구/교육(health research and training)은 감소하였으나, 건강관리

9) 2018회계연도 기간은 2017.10~2018.9이며, FY2019 전망 시 비교하는 전년의 규모는 추정치이며, 예산안 부속서류인 historical table (Table 3.2 - Outlays by Function and Subfunction: 1962-2023)의 수치를 기준으로 작성

10)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1)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2) Historical Tables (Table 3.2 - Outlays by Function and Subfunction: 1962-2023),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

서비스(health care services)와 소비자 및 직장 내 보건/안전(consumer and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등에 대한 지출규모는 증가

- (사회보장¹³⁾) 전년대비 6% 증가한 1조 520억달러로 총 지출대비 23.9% 전망
 - FY2018 사회보장 지출 추정액은 9,925억달러로 FY2017 실적(9,449억달러) 대비 5.0% 증가
- (메디케어¹⁴) 전년대비 7.2% 증가한 6,310억달러로 총 지출대비 14.3% 전망
 - 정부는 향후 메디케어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fraud), 남용(abuse) 등을 개선하고, 낭비지출 종식에 대한 재정개혁안을 제시
 - * 자세한 사항은 <4. 주요재정정책 → 라. 주요 재정절감 및 개혁안 참고>
- (교육·훈련·고용·사회서비스) 전년대비 약 2% 증가한 1,006억달러로 총 지출대비 2.3% 전망
 - 교육·훈련·고용·사회서비스 기능 관련 총 지출은 증가하였으나, 초중고 및 직업 교육, 일반교육 지원(research and general education aids), 훈련/고용(training and employment) 및 기타 노동 서비스 등의 예산은 감소, 대학교육 예산은 증가

13) 사회보장법에 의해 창설된 미국의 대표적 공적연금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에 해당

14) 메디케어: 65세 이상 노인 의료보장제도 / 메디케이드: 65세 미만 저소득자 및 신체장애인 의료지원 제도

<표 5> FY2019 예산안 기능별(Function) 재정지출 규모

(단위: 백만달러, %)

Outlays By Function	실적	추정	전망	증감	
	2017	2018 (a)	2019 (b)	금액 (b-a)	증가율
Defense	598,722	643,266	688,636	45,370	7.1
International Affairs	46,309	47,320	63,312	15,992	33.8
General Science, Space, and Technology	30,394	31,720	32,462	742	2.3
Energy	3,856	3,960	3,223	-737	-18.6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	37,896	40,400	38,258	-2,142	-5.3
Agriculture	18,870	26,943	20,513	-6,430	-23.9
Commerce and Housing Credit	-26,834	4,894	-23,423	-28,317	-578.6
Transportation	93,552	94,364	93,983	-381	-0.4
Community and Regional Development	24,907	54,323	70,352	16,029	29.5
Education, Training, Employment, and Social Services	143,976	98,599	100,613	2,014	2.0
Health	533,129	594,051	594,273	222	0.04
Medicare	597,307	588,373	631,028	42,655	7.2
Income Security	503,484	498,815	499,592	777	0.2
Social Security	944,878	992,533	1,052,073	59,540	6.0
Veterans Benefits and Services	176,543	177,230	197,930	20,700	11.7
Administration of Justice	57,944	69,550	65,216	-4,334	-6.2
General Government	23,896	26,309	29,292	2,983	11.3
Net Interest	262,551	310,313	363,375	53,062	17.1
Others (상계수입 포함)	-89,826	-129,971	-114,012	-15,959	-12.3
재정지출 (GDP대비 비율)	3,981,554 (20.8)	4,172,992 (21.0)	4,406,696 (21.0)	233,704	5.6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Historical Tables (Table 3.2 - Outlays by Function and Subfunction: 1962-2023),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8.2.12

□ 주요 항목별 지출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짐

* 미국 재정의 항목(category)별 지출은 재량지출과 법정(의무)지출로 구분되어지며, 재량지출은 다시 국방분야와 비국방분야 지출로 나누어짐

- 국방분야 예산은 향후 10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비국방분야는 2019년 부터 꾸준히 감소하여 향후 10년 안에 2018년 추정치 대비 약 31%정도 하락한 4,36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표 6> 항목(Category)별 지출 전망

(단위: 십억달러)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6	2027	2028	2019~ 2028
재량지출 프로그램												
국방	590	634	678	721	730	744	759	755	768	783	7,426
비국방	610	636	626	584	549	498	483	452	443	436	5,002
소계: (GDP대비%)	1,200 (63)	1,270 (63)	1,304 (62)	1,305 (59)	1,280 (55)	1,242 (51)	1,243 (49)	1,139 (41)	1,145 (39)	1,151 (37)	12,428 (48)
법정(의무)지출 프로그램												
사회보장	939	987	1,046	1,108	1,173	1,243	1,317	1,562	1,652	1,748	13,720
메디케어	591	582	625	656	703	798	824	1,024	1,107	1,257	3,605
메디케이드 ¹⁾	375	400	412	483	480	495	512	564	579	597	5,196
기타 법정지출 프로그램	574	577	567	575	590	626	621	664	662	680	6,238
Exchange Subsidies ^{2,3)}	39	48	45	11	56
인프라 이니셔티브 충당금	-	-	45	11	18	25	31	11	4	1	193
소계 (GDP대비%)	2,519 (13.1)	2,593 (12.9)	2,739 (13.0)	2,845 (12.9)	2,964 (12.8)	3,187 (13.1)	3,303 (12.9)	3,825 (12.9)	4,004 (12.9)	4,283 (13.1)	34,199 (12.9)
순이자 (GDP대비%)	263 (1.4)	310 (1.5)	363 (1.7)	447 (2.0)	510 (2.2)	568 (2.3)	619 (2.4)	717 (2.4)	740 (2.4)	761 (2.3)	6,070 (2.3)
총 재정지출	3,982	4,173	4,407	4,596	4,754	4,996	5,165	5,748	5,955	6,263	52,697
GDP대비 %	20.8	20.8	21.0	20.8	20.5	20.5	20.2	19.4	19.2	19.2	20.0

주: 1) Medicaid and Market-based Health Care Grant

2) including Basic Health Program

3) 의료보험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 의료보험 시장을 exchange 또는 marketplace라고 불림 (CMS설명자료)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Proposed Budget by Category (Table S-4 & S-5),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8.2.12.

□ 주요 부처(기관)별 2019년 「재량지출¹⁵⁾」 사업은 다음과 같음

○ 국방부

- 해외비상작전(OCO¹⁶⁾)에 사용되는 890억달러를 포함한 국방부 총 예산은 6,860억달러로 2017년¹⁵⁾ 의회확정 예산(2017 enacted level) 대비 13% 증가
- 유럽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unwavering commitment)를 반영한 EDI¹⁷⁾(European Deterrence Initiative)에 63억달러 배정
- 미국 및 동맹국들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핵 3대 전략(해양/육지/상공)의 유지와 현대화를 바탕으로 한 핵 억지력(nuclear deterrent) 예산에 240억달러 배정
- 남아시아의 안보와 안정(stability) 확립의 일환으로 이슬람국가 국제 테러 단체(ISIS¹⁸⁾), 알 카에다(Al Qaeda)에 대항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정부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50억달러 배정

○ 교육부

- 주·지방정부의 초·중·고 교육에 대한 1차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자로서의 권한을 강조한 이번 교육부 예산은 599억달러로 2017년 의회확정 예산 대비 10.5% 감소
- 이번 예산에서는 초·중·고 전 과정에서 연방재원이 투입되는 중복·비효율적 17개 프로그램(약 44억달러 규모)에 대한 간소화·재정립 계획 포함

○ 보건·복지부

- 마약성 치료제 의약품 위기*(opioid epidemic crisis)를 전면에 내세움과 동시에 의약품 가격 인하와 오바마 케어의 폐지 및 대체를 표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예산은 총 6,840억달러로 2017년 의회확정 예산 대비 21% 감소
- 의약품 가격 인하 관련하여, 의약품 관련 파트인 메디케어 파트 D의 현대화와

15) 현재 미국의 2018회계연도의 예산안은 의회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며, 이번 2019회계연도 예산 안에서의 전년 비교는 2018회계연도가 아닌 2017 회계연도 의회 확정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16) Overseas Contingency Operations

17) EDI: 유럽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전투력 재건과 러시아의 억압(coercion) 및 침략(aggression)으로부터 협력대응체계 구축(building partner capacity)을 위한 다년도 사업(multi-year program)

18)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함께 더 많은 일반 의약품이 저렴한 가격에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식품 의약국(FDA)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일반의약품생산자들의 경쟁을 촉진할 계획

* opioid crisis 관련 자세한 내용은 <4. 주요 재정정책> 참고

○ 국무부 및 국제개발처 (DS & USAID¹⁹)

- 미국의 전략목표를 지원할 외교 및 개발 사업 등을 위해 258억달러(base funding)를 배정하였으며, 이는 2017년 의회확정 예산 대비 26% 감소한 수준
- 이스라엘의 방위력 지원을 위해 대외 군사차관²⁰ 33억달러 배정
- 상호 호혜적(reciprocal)이며 공평(fair)한 무역 원칙을 내세우며, 오래된 협정(outdated agreements) 재협상 및 새로운 무역협상 등을 위한 예산 6,300만 달러를 무역대표부(USTR²¹)에 배정

○ 보훈부 (VA²²)

- 보훈부의 재량지출 총 예산은 831억달러로 2017년 의회확정 예산 대비 11.7% 증가
- 증가하는 의료수요에 맞추어 사업의 현대화 및 비의료적 혜택 전달체계(non-medical benefit delivery)의 적시성과 효율성 개선
- 재향군인의 더 나은 선택(options)과 혜택(benefits)의 다양화 등을 위한 인프라 관리 및 현대화에 42억달러 배정
- 부처 사업의 책임성(accountability) 강화, 투명성(transparency) 개선 및 낭비(waste), 사기(fraud), 남용(abuse) 감소를 위한 예산으로 감찰부서에 1,720만 달러 배정

19) DS: Department of State / USAID: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0) Foreign Military Financing grant assistance

21)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22)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표 7> 기관별 (재량)지출 순예산권한 내역

(단위: 십억달러, %)

	2017 의회승인 규모	2018 추정 (estimated)	2019 예산요청 (request)	증가율 (2017 확정예산 대비 2019 예산안)
내각 부처 (Cabinet Departments)				
농무부 (Agriculture)	22.7	22.5	19.0	-16.4
상무부 (Commerce)	9.3	9.3	9.9	6.15
국방부 (Defense)	523.2	574.5	597.1	14.1
교육부 (Education)	66.9	67.8	59.9	-10.5
에너지부 (Energy)	30.2	30.0	29.2	-3.4
(National Nuclear Security Administration)	12.8	12.8	15.1	17.5
보건복지부 (Health & Human Services)	87.2	86.3	69.5	-20.3
국토안보부 (Homeland Security)	42.4	44.1	46.0	8.6
주택·도시개발부 ¹⁾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48.0	47.7	39.2	-18.3 ²⁾
내무부 (Interior)	13.5	13.4	11.2	-16.8
법무부 (Justice, DOJ)	28.4	28.1	28.0	-1.3
노동부 (Labor)	12.0	12.0	9.4	-21.4
국무부 (State and Other International Programs)	38.7	38.1	28.3	-26.9
교통부 (Transportation)	19.3	19.2	15.6	-19.2
재무부 (Treasury)	12.7	12.6	12.3 ²⁾	-3.0
보훈부 (Veterans Affairs)	74.4	77.3	83.1	11.7
주요 정부 기관 (Major Agencies)				
Corps of Engineers	6.0	6.0	4.8	-22.2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8.1	8.0	5.4	-33.7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0.6	-0.9	0.6	N/A
National Aeronautics & Space Administration	19.3	19.5	19.6	-0.3
National Science Foundation	7.5	7.4	5.3	-29.5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0.9	0.8	0.6	-24.5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9.3	9.3	8.8	-4.9
Other Agencies	20.6	20.6	18.0	-13.5
Others	...	-78.3	-18.6	N/A
합계³⁾	1,085.9	1,065.0	1,092.0	0.6

주: 1) 연도별 HUD Receipts 수치 제외: (FY2017) -14.0 / (FY2018) -10.3 / (FY2019) -10.0

2) HUD Receipts 증가율 제외: -28.2%

3) 기관별 재량지출 합계는 cap adjustment를 제외한 Base Discretionary Funding 수치

출처: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Table S-8), 2018.2.12

4. 주요 재정정책

- 행정부 우선순위 정책 -

- ◇ 2018년 2월 12일에 개최된 예산안 언론 브리핑²³⁾에서 대통령실 소속 예산관리처(OMB)의 Mulvaney 처장(Director)은 美 행정부의 우선순위 정책(administration's priorities)으로 ①인프라 투자(infrastructure)와 ②남부지역 국경장벽(southern border wall) 및 ③마약(opioids) 과다복용 확산 등을 언급
- ◇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3.6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주요 재정사업 절감 및 개혁안」을 FY2019 예산안과 함께 발표

가. 인프라 투자

- 1조달러 규모의 민관협력 인프라 투자를 위해 향후 10년간(~FY2028) 2천억달러의 연방정부 재정 투입 계획
 - (인센티브 보조금, Incentive Grants) 주·지방 정부와 민간의 인프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직접 교부금(competitive grants) 형식으로 1천억달러 투입
 - * 주간 고속도로, 철도(commuter railroads), 통신, 공항, 항만 등 모든 공공 인프라의 소유권은 사실상 주 및 지방정부에 귀속되어 있는 상태
 - 동 보조금은 혁신적·현대적 조달 방법(procurement practices)과 함께 새로운 수입 창출 프로젝트 및 사회·경제적 투자 수익 창출 등을 제시하는 프로젝트 책임자(project sponsor)에게 주어질(awarding) 계획
 - (농업지역 계획 기금, Rural Formula Funds) 인프라 관련 연방 총 예산(약 2,000억 달러)의 1/4 규모인 500억달러를 초고속 인터넷 등 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농업지역에 정액 교부금 형식(formula distribution)으로 투입
 - (탈바꿈 프로젝트, Transformative Projects) 기존의 인프라 상태 및 서비스의

23) 미 백악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press-briefing-omb-director-mick-mulvaney-president-trumps-fy2018-budget/>

혁신적 개선(significant improve)을 위해 총 200억달러 투입

- (신용 프로그램, Credit Programs) 연방신용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인프라 프로젝트의 재원조달(financing)을 위해 추가보조금 140억달러 투입
- (기타) 범부처에 대한 연방정부 소유의 부동산 처리를 간소화하여 불필요한 연방 소유의 부동산과 연방시설을 처분하여 및 민간 목적으로 사용 계획 → 이를 통해 지역 경제 개발을 촉진할 계획

나. 이민 제도

-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 이민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 요소임을 인지하고 집권 이후 미국 이민 제도의 일관성(integrity)과 질서(order)의 회복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으며, 동 정책목적을 위해 3대 정책 과제 제시
- 2019년 예산안에서는 이민 관련 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주무부처(primary responsible agencies)인 국토안보부(DHS²⁴)와 법무부(DOJ²⁵)에 총 282억 달러 배정

- 이민 제도 3대 과제 -

- ① 국경안보 강화 (Strengthening border security)
- ② 이민법 집행 확립 (Ensuring enforcement of immigration laws)
- ③ 이민법체계 개혁 (Reforming the legal immigration system)

1) 국경 안보 강화

- 국경장벽 건설²⁶)을 위해 총 180억달러를 투입하고, 이 중 관세국경보호청(CBP²⁷)에 16억달러를 배정하여 남서부 지역 국경의 작전통제권을 지원할 예정

24)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5) Department of Justice

26)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13일, 캘리포니아 주에서 진행된 언론 브리핑에서 국경장벽 건설에 대한 의지의 재천명 및 의회에 관련 예산 요청을 언급하였으며, 연방 이민정책에 반하는 피난처 도시 정책(sanctuary policies)등을 도입한 캘리포니아 주를 비판하기도 하였음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review-border-wall-prototypes-san-diego-ca/>

27) 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한편, 2019년에 약 2억 1천만달러를 투입하여 750명의 국경수비대 증원 계획
- 국경장벽 건설을 통해 범법자, 테러집단, 갱 조직원 활동을 방어하고, 마약밀수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남서부 지역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이민법 집행 확립

- 국내에 거주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확인(identify), 체포(arrest), 기소(prosecute), 적출(removal)의 역할을 담당할 신규 요원 채용 및 지원활동을 위해 이민세관국(ICE²⁸)에 5억 7,100만달러 배정
 - 이민세관국의 체포 및 추방 건수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구금시설(하루 평균 47,000명)을 위한 예산 25억달러 배정
 - 이민행정법원(EOIR²⁹)의 신속한 이민관련 재판을 위한 예산으로 판사(75명) 신규 채용에 4천만달러, 이민세관국(ICE)의 검사(338명) 신규채용을 위해 4천만달러 배정 (최근 65만건의 이민관련 소송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

3) 이민제도 개혁

- 전국적인 의무 전자 확인 프로그램³⁰(E-Verify Program) 확대 예산으로 2,300만달러 배정
- 가족동반의 이주 시스템(family chain migration) 및 추첨식 비자 시스템을 종결하고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이민 여부를 결정할 계획
- 불법 이민 개선 및 이민자 책임법(IIRIRA³¹)을 개정하여 주 및 지방정부가 이민집행 활동(immigration enforcement activities)등에 협조하는 안 제시

28)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29)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30) E-Verify Program을 통해 사업주들이 미국 내에서 합법으로 일할 수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고용했는지를 파악할 계획

31)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다. 의료 정책

<약물 남용(drug abuse) 및 마약성 치료제 과다 복용 확산(opioid overdose epidemic)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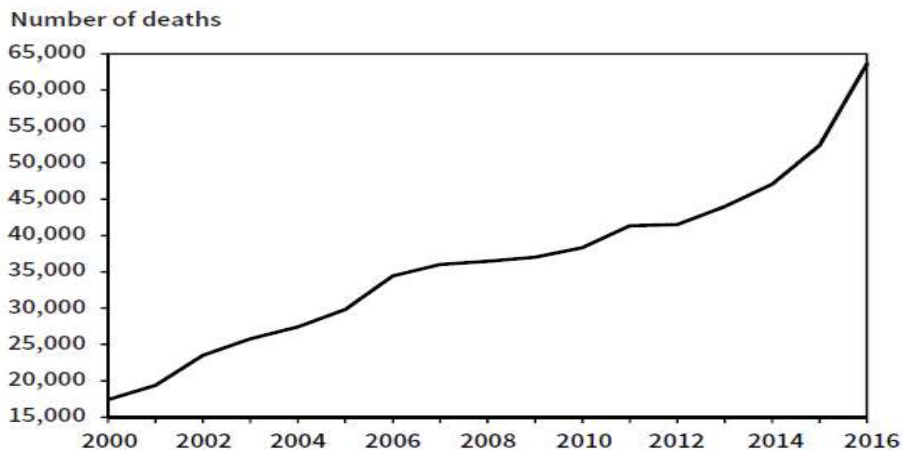
□ 약물 통제(drug control)를 위해 총 300억달러 투입 계획

- 미국 대통령실 산하기구인 마약 통제국(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에 따르면, 약물 통제 관련 총 예산 중 마약성 치료제 위기(opioid crisis)에 대응한 확산 방어, 치료, 차단(interdiction), 국제협력(international operation) 등을 위해 약 70억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추정

* 2017년에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더 많았으며, 2016년에는 약물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64,000명이었음 (하루 174명 사망)

- 미국국립보건원(NIH)에 1억달러를 배정하여 약물산업에서의 민관협력을 통해 약물치료 및 예방, 중독성을 초래하지 않는 통증완화요법(non-addictive therapy for pain)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
- 기타 세부 사업을 보면, 언론 광고(media campaign)에 5,000만달러, 주정부 위기 대응지원 예산에 6,250만달러, 약물법원³²⁾(drug courts)에 2,000만달러 등 배정

[그림 1] 약물 과다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 추이



자료: Centers for Disease Control WONDER

32) Drug Courts: 약물법원에서 제시하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약물 중독자에 대해 통상적인 사법시스템 대신에 활용되는 제도로, 대상자들은 약물법원 판사의 면밀한 감시와 명령을 받게 됨
<자료: NADCP (National Association of Drug Court Professionals)>

<http://www.nadcp.org/learn/what-are-drug-courts>

- 약물 통제의 연장선상에서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관련한 제도 개선을 계획 중
 - 메디케이드 관련, 이번 예산을 통해 증거에 기반한(evidence-based) 약물 지원 치료 프로그램(medication assisted treatment options)을 확대할 예정
 - 동 제도를 통해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센터³³⁾가 정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임상 오·남용(clinical abuse)을 줄이고 주정부가 모범 기준(best practices)을 불이행하는 처방자(prescribers)를 추적하여 대응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
 - 메디케어 관련, 파트 D³⁴⁾(처방약)에서의 처방의약품 남용(prescription drug abuse)을 줄이고, 수혜자(beneficiaries)들을 유해약물(potentially harmful drugs)로부터 보호하는 프로그램 제공
 - 이와 함께, 복지부 장관이 마약단속국(DEA,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과 공조하여 의약품 처방을 남용하는 처방자들의 자격증을 취소하는 방안 계획
-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오피오이드 위기(opioid crisis)에 대응한 예산으로 마약중독자 치료지원과 더불어 마약밀매(수) 조직 타진을 위해 마약단속국에 22억달러 예산 배정

라. 주요 재정사업 절감(savings) 및 개혁(reforms)

- 트럼프 행정부는 예산안 부속서류(제목: Major savings and reforms - FY2019)를 통해 재량·의무지출 절감 및 개혁방안을 발표
 - 재량지출과 의무지출 사업의 폐지(eliminations) 및 규모 삭감(reductions) 등을 통해 연방지출을 통제 가능(under control)한 수준으로 만들고, 향후 10년간 (budget window) 3.6조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 계획
 - (재량지출) 2019년 재량지출 사업의 경우, 총 484억달러 절감 전망
 - 사업폐지를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총 258억달러, 사업규모 감축을 통해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c=20170626000190>

33) CMS,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34) 메디케어는 의료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파트 A, B, C, D 등으로 구분되어 지며, 파트 D는 처방약 보험에 해당됨

<https://www.medicare.gov/supplement-other-insurance/medigap/whats-medigap.html>

226억달러 절감 계획

- (의무지출) 절감방안대로 이행 될 경우, 5년(FY2019~FY2023)간 총 5,568억달러를 절감하고, 10년(FY2019~FY2028)간 총 2조 1,290억달러 절감 전망

주요 재정사업절감/개혁안 「복지부」¹⁾ 예시

<재량지출 예산권한 폐지사업 예시>

① 지역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사업 (Community Services Block Grant)

- (폐지 규모)
 - (2017 의회승인) 7억 1,500만달러 → (2019 예산요청) 전액 폐지
- (사유)
 - 동 예산은 빈곤(poverty) 종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들(CAAs²⁾)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적/대상(target)이 명확하지 않을뿐더러 수혜 받는 기관들이 이미 다양한 기관을 통해 중복지원(duplicative of services)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 예산이 성과를 기반으로 한 배분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에 대한 혁신 유인책이 없는 실정

② 저소득가구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³⁾)

- (폐지 규모)
 - (2017 의회승인) 33억 9,000만달러 → (2019 예산요청) 전액 폐지
- (사유)
 - 동 연방 사업에 있어서 많은 부정수급(fraud)와 남용이 발견되는 등 감독이 허술했으며, 2010년 회계감사원(GAO)은 사망자(deceased)나 투옥된 자 (incarcerated individuals)를 대상으로 예산자금이 집행된 사례 지적
 - 또한, 이미 주 정부에서 동 사업 관련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기에 필요 없게 됨

<의무지출 절감 개혁안 예시>

① 사회서비스 포괄보조금 (Social Services Block Grant)

- (절감안 계획 규모)
 - (2019~2023년) 81억 6,000만달러 → (2019~2028년) 166억 6,000만달러
- (사유)
 - 동 프로그램은 아동과 성인에 대한 보호(child and adult protective services)

및 착취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⁴⁾로, 관련 예산에 대한 강한 성과지표가 부족 (lacks strong performance measures)하고, 주정부가 예산을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대한 보고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 수혜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며, 연방정부의 고유 사업(core function)이 아닐뿐더러 주/지방정부에서 관련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음

② 메디케어: 낭비지출 폐지(Eliminate Wasteful Federal Spending)

- (절감안 계획 규모)

- (2019~2023년) 782억 9,400만달러 → (2019~2028년) 2,661억 9,100만달러

- (사유)

- 과도한 지출(excessive spending) 및 왜곡된 현 지급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메디케어 의료기관(providers)에게 지급하는 대금손실⁵⁾(bad debts)의 65%를 3년간 25%로 감축
- 산발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급성질환 치료 후 케어(post-acute care) 지급 시스템의 일원화 및 필요에 기반한 치료(clinical needs) 등 다수의 메디케어 절감안 계획

주: 1)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 Community Action Agencies

3) LIHEAP

4) (자료) 이미리, 국내보육지원사업의 성과평가 방향: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2009.9

5) 수혜자들(beneficiaries)이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못한 co-payments 또는 deductibles 등 자기부담금에 대한 지급이 이행되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금

자료: 「Major savings and reforms - FY2019」,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2018.2.12.

<표 8> 주요 재량지출 예산권한 폐지(안) 규모

(단위: 백만달러)

	2017 의회 승인 <2017 Enacted>	2019 예산요청 <2019 Request>	폐지 및 감축 규모 <2019 change from 2017>
농무부	938	938
상무부	669	20	649
교육부	5,659	5,659
에너지부	657	278	379
보건·복지부	4,968	88	4,880
국토안보부	45	45
주택/도시 개발부	4,142	138	4,280

내무부	158	158
법무부	210	210
국무부 및 국제개발	4,629	4,629
교통부	500	500
재무부	53	53
NASA (미국항공우주국)	338	338
기타 정부기관	2,822	324	2,498
총 폐지규모	26,331	572	25,759

출처: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Major savings and reforms - FY2019」, Fiscal Year 2019 Budget of the U.S. Government, 2018.2.12.에서 부처별 최종 규모 발췌